

# ‘광주교육 사망’ 현수막 건 문제유출 高

## 광주교육청 감사결과에 반발 노골적 성토 나서 시교육청 “의혹 아닌 확인된 내용 발표” 반박

명문대 진학실적을 위해 부당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광주 한 교고가 교육청을 노골적으로 성토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20일 광주 북구 A고교 교문과 학교 건물 등은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비난하는 현수막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학교 측은 ‘광주교육 사망’ 근조 현수막 등을 내걸면서 교육청의 성적 조작과 성적비리 등에 대한 감사결과에 반발했다.

현수막에는 ‘성적조작/ 성적비리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다’, ‘군사 정권 능가하는 협박과 조작 감사가 정 의인가? 진보인가?’, ‘실수한 교사 징계하고 고발하는 교육청 무서워서 교사 하고 싶겠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애꿎은 학생들과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은 SNS 등을 통해 학교 측이 내건 현수막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사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것을 밝힌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 등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며 “협박이나 조작 등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A고교에서는 3학년 기말고사 수학시험 5문제가 특정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된 문제에서 출제됐다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 조사 결과 ‘기하와 벡터’ 교과목 시험 문항 5개 가운데 4개는 수학동아리 학생 31명에게 사전에 나눠준 문제와 일치했고, 나머지 1개 문제는 기호 하나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A고교가 명문대 진학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특정 학생들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와 평가관리 부작정, 대학입시중심의 부당학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 4가지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학교 법인에 교장과 교감, 교사 4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 퇴직교사 1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조인호 기자

## 수업시간 상영 영화로 ‘성비위 논란’ 교사 수사

경찰이 중학교 성 윤리 수업 당시 상영한 단편영화로 인해 성 비위 논란에 휩싸인 도덕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한 중학교 도덕교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광주시교육청이 경찰에 A교사가 ‘성과 윤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틀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는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졸업...새로운 시작** 20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열린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있다.

## “시험문제 유출 의혹 고교 후안무치 대응, 일벌백계 하라”

### 광주 교육단체들 성명 “장휘국 교육감 사과해야”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이 제기된 광주 A고등학교에 대해 “학교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A고교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불법행위”라며 “하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A고교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고교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앞드려 사죄하라”며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우열관을 편성해 운영했으며 특정 학생에게 별도의 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

다”고 비판했다. 또 “시험문제 유출 이외에도 최상위권 학생 특별관리,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등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교육청의 감사결과로 드러난 A고교의 총체적인 학사 운영의 부정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씻을 수 없는 반교육적인 불법행위”라며 “하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후안무치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A고교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고교 재단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학생, 학부모, 시민들에게 앞드려 사죄하라”며 “시교육청의 요구대로 관련자를 엄정 우열관을 편성해 운영했으며 특정 학생에게 별도의 교육 등 특혜를 제공했

다.

이어 “시교육청은 A고교에 학습수감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으로 일벌백계해 평가 부정과 성적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의지를 전명하라”며 “성적조작 의혹과 관련해 학교운영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불법 잔조금 의혹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시교육청은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 가짜 시간표 운영, 성적 몰아주기,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실태를 조사하고, 적발된 학교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고교 성과와 평가관리 문제에 대한 실태 점검과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발표하고, 학생과 학부모·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길거리서 여성에 흉기 휘둘러 정신질환자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3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최근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킨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음주운전 사고 낸 뒤 달아난 50대 남성 입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모씨(58)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0시15분쯤 광주 남구 방림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A씨(25)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차를 버리고 사고 지점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아파트 단지로 달아났으나, A씨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은 25분 만에 아파트 정자에서 이웃주민들과 함께 있던 김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김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080%를 2.5배 이상 넘어선 0.205%로 측정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나주서 소 뿔에 맞힌 50대 목장주 중상

50대 남성이 목장에서 소 뿔에 맞혀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9일 오후 6시26분쯤 나주시 왕곡면 한 짚소목장에서 목장주인 A씨(57)가 소 뿔에 맞혔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돼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짚소 목장에서 몰려있는 소 무리를 분리하는 작업 중 흥분한 소에게 들이받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은 목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해외까지 원정 몰카’ 30대 검찰 송치

5년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고양시의 한 상가 여저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여성 14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국내 버스·지하철·카페·노상 등 물론 해외에 나가서도 비행기와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A씨는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버섯 채취 60대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

충북 괴산군에서 버섯을 따러 간다며 집을 나간 6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52분쯤 괴산군 칠성면 태성리 한 야산에서 숨져있는 A씨(66)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버섯을 채취하겠다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이틀간 수색작업을 벌여온 경찰과 소방대는 A씨의 차에서 70여m 떨어진 곳에서 별다른 의상없이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